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의한 영화 속 꿈 표현의 비교 연구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와 “인셉션 (2012)”를 중심으로)

이태훈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디지털 콘텐츠 학과

A study of comparison about dream sequence in film based on Freud's Psychoanalysis (Focusing on the film “Mulholland Drive(2001)”and “Inception(2012)”)

Tae-Hoon, Lee

Dept. of Digital contents Design, Kyung-Hee University

요 약 꿈속의 세계를 독특한 시공간으로 묘사하며 꿈의 표현에 새로운 장을 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 (2012)”은 현실과 꿈 사이에서 환영에 빠져 있는 몽환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구조와 형태라는 실제적인 꿈의 모습과 본질에 대해서는 표현에 있어 한계와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꿈의 실제적인 프레젠테이션 과정의 표현에 있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보다 가까운 데이빗 린치 감독의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프로이드가 언급한 꿈에 대한 해석과 맥락을 분석하려 한다. 영화 “인셉션”은 공상과학 영화의 관점에서 창조된 시공간과 풍부한 상상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꿈의 본질을 적용시킨다는 관점에서 논리적 개연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비논리적이고 혼란스럽고 불유쾌한 무의식의 느낌에 대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인 꿈의 해석에 입각한 논리와 질서를 부여해서 무의식의 사고과정과 흡사한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관점에 입각한 꿈과 무의식의 묘사를 통해서만 꿈의 보다 더 리얼한 장면 묘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꿈 시퀀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데이빗 린치, 크리스토퍼 놀란

Abstract Christopher Nolan's film "Inception (2012)", which depicts the world of dreams as a unique space-time and opens a new chapter in the expression of dreams, portrays the dreamy world of unconsciousness. However, I can find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in the expression of the actual dreams and essence of unrealistic structures and forms. I can find David Lynch's movies "Mulholland drive (2001)", which are closer to Freud's psychoanalysis in expressing the actual presentation process of dream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I try to analyze the interpretation and context of the dream mentioned by Freud. The film "Inception" can be appreciated in terms of space time and rich imagination crea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fiction movies, but it shows that logical reasonability is weak in view of applying the essence of dream. On the other hand, the film "Mulholland Drive" describes the illogical, confusing and unhappy feeling of unconsciousness by giving logic and order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Freud's psychoanalytic dreams, is.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portray more realistic scenes of dreams only through the portrayal of dreams and unconsciousness based on Freud's psychoanalytic viewpoint.

Key Words : Dream sequence, Freud, Psychoanalysis, David lynch, Christopher Nolan

Received 31 August 2017, Revised 29 September 2017
Accepted 20 October 2017, Published 28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Tae-Hoon, Lee
(Dept. of Digital contents Design, Kyung-Hee University)
Email: thlee1401@empas.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1.1 연구 배경

영화구조에 있어 꿈의 묘사는 줄곧 캐릭터의 내면세계를 묘사하는 장치로 사용되며 강박관념과 억압된 소망 등을 표현하여왔다. 그러나 실제적인 꿈의 독특한 구조와는 동떨어진 정보를 제공하는 발현양식으로만 묘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세기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트는 꿈에 대한 본질적 접근에 성공하였으며 현대에서조차도 통념적으로 이를 꿈에 대한 일반적인 매뉴얼로 사용할 정도로 일반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꿈속의 세계를 독특한 시공간으로 묘사하며 꿈의 표현에 새로운 장을 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2012)”은 현실과 꿈 사이에서 환영에 빠져 있는 몽환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구조와 형태라는 실제적인 꿈의 모습과 본질에 대해서는 표현에 있어 한계와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꿈의 실제적인 프레젠테이션 과정의 표현에 있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보다 가까운 데이빗 린치 감독의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프로이드가 언급한 꿈에 대한 해석과 맥락을 분석하려 한다.

1.2 연구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 “인셉션”과 “멀홀랜드 드라이브”에서 묘사된 꿈의 서사방법들을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입, 비교, 분석하여 실제적인 꿈의 과정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도출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무의식의 영역의 완전한 꿈의 세계의 표현에 대한 비교 분석,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적용분석, 꿈의 실제적 속성 표현인 본능적 형태의 원초적 욕망의 다양한 표현 적용 분석, 현실 속 기억과 느낌과의 인과관계 적용 분석 등을 통해 꿈의 현상에 대한 리얼리티 적용여부 등을 비교 분석하려 한다.

2. 이론

2.1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본 “꿈”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의

식하는 과정에서 놓치거나 신경 쓰지 않은 기억들을 전부 ‘무의식(Unconsciousness)’ 속에 저장하며 이러한 무의식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서 의식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1].

또한 이성이 지배하는 낮 시간에서 억눌려있던 반사회적인 욕구를 꿈을 통해 보상, 충족하려하고 꿈은 억압된 생각과 소망을 위장된 방식으로 만족을 얻게 만들며, 그 본질이 “희망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2].

위장이란 억제되어 있는 욕구인 잠재몽을 이상한 내용(발현몽)으로 바꾸어냄으로써 의식이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구를 피하는 것이라면서 깨어 있을 때 충족되지 않는 충동을 표현하기 위해 추상적인 용어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되살아나거나 특정한 물건이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매우 많은 상징이 이용된다고 한다[3]. 발현몽이란 기억에 남아있는 꿈의 사실적 내용이고, 잠재몽이란 그 꿈 내용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적 의미를 일컫는다. 따라서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 무의식적인 의미 찾아내는 것이다[4].

또한 정신적 검열의지와 맞물려 압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의 발현몽 내용은 여러 잠재몽 내용을 압축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여러 발현몽 내용이 하나의 잠재몽 내용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압축의 과정은 무의식의 여러 가지 상들이 겹쳐지거나 극히 일부분으로 축소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꿈이 비논리적이고 그 내용이 무의미한 듯 보이거나 유치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5].

꿈의 내용은 이렇듯 검열을 받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상징적인데 이 상징화의 주요 내용이 주로 성적인 것이라고 프로이트는 보고 있으며 꿈꾼 사람의 꿈 요소들에 대한 연상 작용을 통해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된다[6].

또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이 꿈속에서는 다른 사물이나 사람에게 전위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등 꿈은 그 본질인 “희망의 실현”을 위한 무의식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7].

프로이트는 또한 자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드는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욕구로 본능적이며 반사회적이다. 초자아는 양심을 말하며 금지, 비난, 억제 체계로 자아의 규율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자아는 이러한 이드의 충동과 초자아의 도덕적 억제 가운데

에서 갈등하며 결정하는 심리적 주체라고 규정하며 논리적이며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8]. <Table 1>

<Table 1> summary of Freud's Psychoanalysis[9]

definition		oppressed desire inside unconsciousness
form		potential dream is embodied revelation dream
expression	transposition	one thing is expressed as other things or other person
	compression	one revelation dream can be various potential dream with compression
	symbolization	abstract thing can be changed certain figure or activity

3. 본론

3.1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세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매우 지적이며 종종 비선형적인 스토리텔링을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10].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에 근간을 둔 연출 방식을 선호하며 사실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C. G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며 비현실적인 소재를 현실적으로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실제로 결정적인 장면에서 비현실적인 소재를 등장시킨 까닭에 추리, SF 팬텀에서는 개연성 오류나 고증 오류가 자주 나타나는 편이며, 일반 관객이나 인문학 쪽에서는 이를 하나의 내러티브적 장치라고 보며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11].

영화 '인셉션'에서는 사람의 꿈과 꿈속의 꿈을 이용, 시간의 틀을 벌리고 또 벌리는 연출을 통해 기존까지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에 관한 소재의 틀을 깨고 독특한 세계관을 선보이고 있다. 꿈속의 꿈들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며 애초의 내러티브를 잃어버리고 미로를 헤매게 하며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꿈인지 환영에 빠지게 하는 설정을 통해 난해한 무의식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12].

3.2 데이빗 린치 감독의 작품세계

독특함이 돋보이는 난해함과 몽환적 설정으로 유명한 미국의 컬트영화 감독 데이빗 린치는 그의 영화 "로스트 하이웨이(1997)" 이후, 꿈을 소재로 한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 (2001)"로 2001년 L. A 비평가협회상 감독상과 뉴욕 비평가 협회상 작품상, 칸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

게 된다[13]. 무엇보다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입각한 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표현, 묘사,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공 다이앤의 억압된 욕망과 잠재된 강박관념들이 무의식의 느낌으로 저장, 왜곡되게 표현되며 현실 속 리얼리티와 뒤섞이는 알 듯 말 듯 한 모호함이 연속되는 영상구조는 무의식의 영역의 완전한 꿈의 세계의 표현을 추구하는 작가주의적인 컬트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14].

3.3 작품의 비교분석

3.3.1 무의식적인 사고체계에 대한 표현 비교

영화 초반부에 코브가 자신이 고용한 아리아드네의 꿈으로 들어가 그녀의 무의식이 만든 세계에 자신의 무의식의 투영체를 채우며 꿈을 공유하는 법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꿈을 지배하는 무의식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 보면 위의 장면이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는데 무의식은 이드에 의해 주관되고 꿈속의 억압된 소망의 왜곡된 실현을 위해 지극히 이기적인 사고로 자신의 의지(이성, 의식)와 상관없이 꿈을 시행해나간다. 이러한 한사람의 통제 불가능한 무의식에 의해 주관되는 꿈에 무의식 상태로 참여를 한다거나 이성적인 관계의 사회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팀들이 전략과 같은 사회적인 행동을 기획,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위의 사회화된 행동들은 모두 자신의 이드가 아닌 자아와 초자아에 의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꿈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꿈속의 행위나 소리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직감적으로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한다[14]. 꿈의 모습은 실제로 의식의 검열과정을 피해 무의식의 억압된 욕망이 왜곡 분출되는 형태로 논리적 구성보다는 무의미하고 유치한 이미지들이 연속되게 나열 되는 등, 논리적 해석이 불가능하다[15]. 일반적으로 꿈을 꾸는 중에는 이성과 의식은 무의식에 의해 진행되는 비논리적 비약의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주 가끔 꿈이라는 걸 인식하면 이성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이후론 꿈에 더 이상 남아있기는 힘들다.

무의식은 의식(이성)과 단절되어 있어, 의식이 무의식의 현황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으로서의 무의식을 통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곳곳에서 나타나는 무의

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16], 자신의 무의식의 투영체들이 다른 누군가가 이 세계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코브와 아리아드네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논리는 ‘무의식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논리하나로는 설명이 불충분한 꿈의 세계의 실제적인 법칙을 무시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



[Fig. 1] expression of dream from unconsciousness

또한 극중 여러 장면에서 상대의 투영체로부터 숨는다는 설정이 나오는데 투영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정의는 생각의 조각일 뿐, 자율적으로 어떤 리액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리액션이 있다면 그 주체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꿈의 주체자이다. 그 주체가 현장을 사고하고 목격하고 있지 않다면 그 투영체는 다른 사람의 눈에 허수아비여야 한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투영체가 하는 역할들을 살펴보면 꿈의 주체가 이미 꿈속의 꿈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영체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또한 아리아드네는 멜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현실에서 드러내는데 이는 코브에 대해 이성적인 매력이라는 느낌은 억압된 성적 욕망으로 무의식에 저장될 것이며 이러한 표현하지 못한 욕구가 꿈속에서 투영된다면 그런 그녀의 무의식적 욕망들이 다양한 모습의 본능적 행태로 꿈에 원초적이며 상징적으로 드러나야 함에도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의식에 의해 사회적이며 절제된 자아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비이성적이며 무의식적 사고가 흘러넘치는 원초적이어서 할 꿈에 대한 본질적 묘사에 위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조차도 창피하리만큼 솔직하고 꿈 속 사건 등에 대해 왜곡과 상징 등을 통한 비논리와 비약 그러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무의식의 욕망과 느낌과 병치되는 신비로운 꿈의 속성은 무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다른 사람의 꿈에 침투할 수 있다는 S. F적인 가상의 현실을 토대로 설정된 구도이지만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실현’이라는 지상과제를 운영하는 이드의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진행(왜곡, 전위, 압축 등)에 누군가는 시공간을 설정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 위에 투영체를 채운다는 생각은 꿈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두 인격체가 하나의 꿈에서 만난다면 지극히 자기본능중심의 각각의 이드에 의해 운행되는 두 사람의 무의식의 부산물들의 엄청난 충돌로 그려진 혼돈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예상되며 모호해진 잠재물을 통한 발현몽의 해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이 장면에서 아리아드네가 ‘비주얼이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느낌이 더 중요하군요.’ 라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느낌이 의식(consciousness)의 기억과 다르게 묘사된 장면을 영화 속에서 찾을 수는 없다. 이러한 느낌에 의해 리얼리티가 꿈 속에서 왜곡, 전위되는 장면을 찾아보면 그 꿈의 본질에 대한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에서 주인공 다이앤의 꿈속 아파트매니저가 실제로는 영화감독의 어머니인 것은 친절할 것 같지만 도도한 차별주의자라는 다이앤의 무의식적 느낌에 의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처지와 같다는 무의식적 공감에 기인, 식당의 종업원 이름을 꿈 속에서는 자신의 이름이라고 믿고 각인하고 있는 장면 등 꿈 속의 투영체들이 무의식에 의한 느낌에 입각하여 설정된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Fig. 2]



[Fig. 2] expression of feeling from unconsciousness

꿈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어떤 종류의 이미지로 구성된 썬이나 쇼트가 아닌 생각의 과정, 프로세스이다. 꿈이라는 생각의 주체는 한 인물의 무의식이고 철저히 자신의 억압된 욕망에 대한 해소와 소망실현을 위해서 벌어지는 자정적인 뇌의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꿈의 속성을 전제하여 영화 ‘인셉션’의 꿈의 표현을 분석해보면 다른 사람의 무의식의 투영체와 마주 치는 등, 마치 그저 하나

의 세상이라는 개념에서 서로가 보는 것과 만들어 놓은 것이 겹친다는 개념, 또 꿈을 의식적으로 설계한다는 개념 자체가 꿈의 실제적 속성과는 틀린 접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꿈에서 상당부분을 실제로는 이성적인 행동과 계획으로 묘사하는 장면 등은 꿈의 속성에 맞춰 무의식의 개념에 부합하여 표현된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와 분명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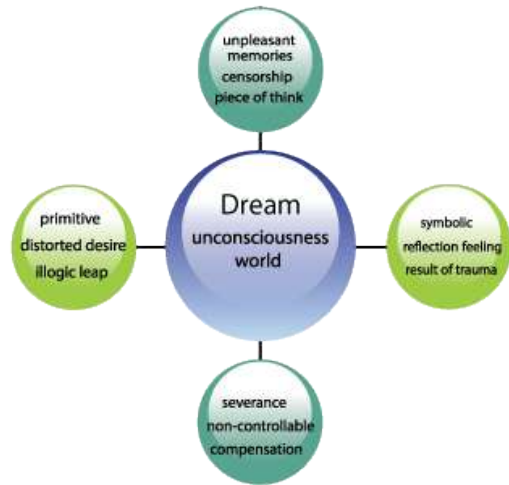
<Table 2> summary of comparing between two films

name of film	inception	mulholland drive
leader	logical consciousness	unconsciousness
feeling	no examples	described well
desire	abstinence	instinctive
control	possible	impossible

3.3.2 꿈과 현실의 역학관계 비교 분석

보다 구체적이고 진중한 현실적 스토리 설정은 모든 공상과학 영화의 숙제인 것은 사실이다. 모든 영화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 속 주요 갈등요인 (main conflict)과 주인공의 목적 (objective)을 분석해 보면 이 영화의 신빙성과 현실성 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영화 '인셉션'에서는 재벌2세 상속자인 피서가 창업주인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상속받은 그룹을 해체하려는 위기가 메인 갈등요소이며 이를 저지하고 자신의 자녀와의 재상봉이 주인공 코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숙한 후계자 피서의 그룹 분해 판매를 막기 위해 그의 무의식의 소망인 아버지로부터의 신뢰와 사랑을 꿈속에서 실현케 해주기 위해 주인공 코브를 비롯한 많은 팀원들이 그의 꿈속으로 침투하여 목숨을 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꿈을 통해 실현된 소망에 대해 현실에서 부여하는 의미와 자의식의 만족감은 실제로 미비하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무의식적 산물인 지극히 비현실적인 허구적인 현실 불가능한 꿈의 내용을 근거로 실제 삶에 적용,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평생 자신의 무능함을 질책하던 아버지가 꿈속에서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며 무의식의 소망이 실현되며 깨었다 하더라도 곧 이성적 판단이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허구적인 꿈일 뿐이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일 텐데 이러한 그의 꿈을 실현키 위해 영화 전체의 구성원들이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붓는 설정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Fig. 3]



[Fig. 3] definition of unconsciousness process

꿈의 실제적인 역할은 자신의 기억과 느낌, 강박관념 등을 왜곡된 형태로 보상받으며 의식이 받은 트라우마 등을 경감케 하는 것이지 사실을 스스로 왜곡, 저장하고 믿게 하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세계의 경험에서 받는 느낌은 무의식이 생성되는 과정이며 꿈은 이러한 느낌이 왜곡, 보상받아 자아의 상처가 경감되는 결과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장면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느낌에 변화'라는 무의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꿈에서 요원들의 침투에 의한 계략으로 인위적으로 생성케 하고 있다. 즉, 무의식은 현실 속 느낌에 의해서만 생성되고 꿈은 그 결과이지 꿈이 이러한 기억과 느낌을 새롭게 생성하거나 자신의 선입견 등을 바꾸는 시공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순전히 꿈에서 받은 트라우마'란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꿈에서 바뀐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봤다고 해도 무의식속 축적된 아버지의 현실 속 기억을 토대로 한 느낌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현실에 냉정함이 꿈에 우려로 나타나는 것이 허구적인 꿈이 현실의 생각에 반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이 평소 흠모하던 스타가 자신의 무의식적 흠모의 보상과정으로 꿈속에서 연인으로 발전되었다고 현실로 돌아와 의미를 부여할 정상인은 드문 것처럼 꿈 속 내용을 현실에서 갈망하는 모습은 치매환자에게서나 볼 수 있다. 이렇듯 일반적인 꿈의 현상에 대한 리얼리티를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영화 속 모든 모험은 사실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꿈과 현실에 대한 역학관계의 올바른 표현의 예를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플롯은 시골출신 다이앤이 할리우드에서의 스타의 꿈이 좌절되자 권총으로 자살하면서 죽기 직전에 꾸는 영화의 전반부에 배치하여 억압된 생각과 소망이 왜곡된 방식으로 만족을 얻으며, 그 본질인 희망을 실현하는 모습을 통해 그녀의 성공을 향한 강박관념을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그 꿈의 몽환적 설정의 절정인 새벽공연 관람과 비현실적인 형태의 파란 큐브와 베티의 행방불명 등 실체가 아니라는 힌트를 점차적으로 부여하며 꿈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의식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꿈의 전반부에는 오디션에서 극찬을 받으며 에비스타가 되는 왜곡된 소망의 실현 장면과 무명인 자신과 스타인 친구가 한명으로 등장, 워너비와 자기연민을 묘사한 장면 등 비논리적이고 혼란스럽고 불유쾌한 것들에 무의식적인 논리와 질서를 부여해서 무의식의 사고과정과 흡사한 관점의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의식에 의해 느낀 느낌을 검열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후반부에는 무명가수가 립싱크로 슬프게 노래를 부르다 쓰러지는 장면을 통해 스타가 되지 못하고 좌절된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고 전반부에 무의식의 느낌에 의해 묘사된 인물들의 다른 실제 모습과 맞닥뜨리는 모습으로 왜곡된 소망에 저항하는 의식의 강박관념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분석된 꿈과 무의식의 실체에 보다 가깝게 묘사된 예를 통해 소망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띤 꿈의 보다 더 리얼한 장면 묘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Fig. 4]



[Fig. 4] example of description of dream scenes in the film “Mulholland dr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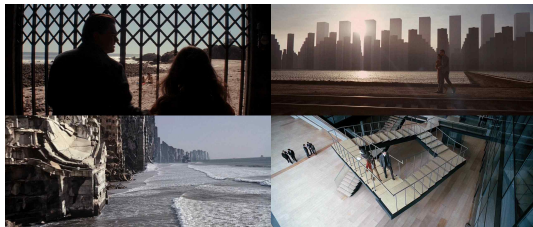
영화 속에서 코브는 멜 과의 다양한 기억의 장소를 꿈속에서 층계별로 설계해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음대로 다닌다. 뿐만 아니라 아리아드네도 타서 버튼을 누르면 설계된 대로 원하는 층에 가서 그 안에 갇혀있는 코브의 무의식이 만들어 낸 멜을 만나게 되며 코브와 아리아드네 두 사람은 철저히 의식에 의한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갈등을 수습하고 꿈밖으로 나온다. 철저히 코브의 기억의 산물이자 투영체인 멜이 코브가 없는 공간에서 아리아드네에게 알 수 없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등, 꿈의 본질과 이미지의 주체에 대한 분석과정을 거치면 이는 지극히 이성적인 의식이 지배하는 꿈의 본질과는 다른 공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꿈의 공유는 단순히 꿈속의 시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을 넘어서 타인의 무의식과의 혼합이며 다른 사람의 관점과 느낌에 각각 영향을 주며 대 혼돈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Table 3>

<Table 3> summary of comparing between two films

name of film	inception	mulholland drive
the way movie describe the dream sequence	dream is not a time & space for changing feeling, but its consequences	feeling by unconsciousness is well described through censorship with variety
	reasonal conversation with conscious	confusion, unpleasant, by unconsciousness think process
	rack of reasonal probability	adaptation of reality of dream
	believe and save as a reality of memory the things happened in dream, which is distorted	rewarding obsession with distorted form relief of trauma

또한 꿈이 가지고 있는 자아방어체계를 이용 (부정, 치환, 분리, 투사, 합리화, 억압) 꿈속에서 죽을 만한 데 미지를 입어도 자신이 죽은 게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죽지 않을 수 있으며 멜이 현재 현실이 꿈이라고 믿으며 죽었다면 굳이 그곳에 변호사 및 소송 등의 이중 장치를 설정한 필요성에 의문이 대두되고 이렇게 꿈속에서 이성적인 코브가 꿈인 걸 모르고 원초적 무의식의 산물인 무너지는 건물과 절벽 속에서 50년을 살아왔다는 설정, 꿈 안에는 일반적으로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꿈에서 꿈으로 이동하는 데도 과학 장치를 쓴다는 모순, 꿈이 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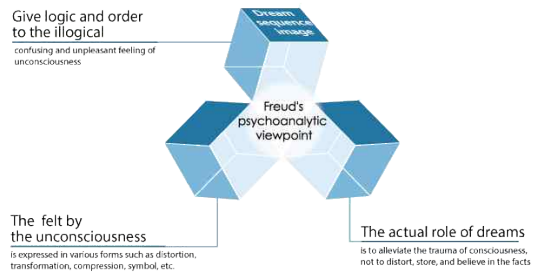
리독스 현상이라면서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과 같다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는 장면, 창조와 인지가 동시에 반복을 하고 있다며 꿈속에서 논리적 정의를 내리는 등 일반적인 공상과학 영화의 관점에서 풍부한 상상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논리적 개연성이 실제 꿈의 본질을 적용시킨다는 관점에서는 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Fig. 5]



[Fig. 5] example of description of dream in "inception"

4. 결론

앞서 본문에서 분석한대로 영화 "인셉션"은 공상과학 영화의 관점에서 창조된 공간과 풍부한 상상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꿈의 본질을 적용시킨다는 관점에서 논리적 개연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무의식은 이드에 의해 주관, 지극히 이기적인 사고로 자신의 의지(이성, 의식)와 상관없이 본능적 욕망들을 원초적으로 시행해나가므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인 협동 작업이 불가능하며 꿈의 실제적인 역할은 의식이 받은 트라우마 등을 경감케 하는 것이지 사실을 스스로 왜곡, 저장하고 믿게 하는 것은 아님이기에 본 영화의 기본 기승전결의 구조는 꿈의 본질에 부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비논리적이고 혼란스럽고 불유쾌한 무의식의 느낌에 대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인 꿈의 해석에 입각한 논리와 질서를 부여해서 무의식의 사고과정과 흡사한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무의식에 의해 느낀 느낌을 검열과 정을 통해 왜곡, 전이, 압축, 상징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6]



[Fig. 6] Freud's psychoanalytic view point of dream

이처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관점에 입각한 꿈과 무의식의 실체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만 소망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띤 꿈의 보다 더 리얼한 장면 묘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꿈의 실제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시공간이 묘사되었을 때 무한 영역의 미개척적인 꿈의 세계의 묘사는 더욱더 리얼해지고 풍부해질 것이며 향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창조적 시공간으로 그 가치와 쓰임새가 높아질 것이다.

REFERENCES

- [1] bbo-eun, "interpretation of dream, Freud",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atefulday3&logNo=220967290230>, 2017.3.20
- [2] Jang, dal-soo, "study of Freud's Psychoanalysis about dream sequence image", <http://cafe.daum.net/jangdalsoo/iXLb/5>, 2017.4.17.
- [3] Dicaprio77, "inspiration of dream and psychoanalysis interpretation", <http://cafe.daum.net/dicaprio77/3FHA/5,2008.06.27>
- [4] Jisik world, "After reading interpretation of dream" <http://www.jisikworld.com/report/view.html?dno=368140&link=other>, 2006.10.22.
- [5] Peace, "inspiration of dream and psychoanalysis interpretation, freud, and Jung", <http://blog.daum.net/albatrossdream/14734666>, 2008.1.25
- [6] go eun pang, "interpretation dream with freud's technique", <http://blog.daum.net/nice7day/7798554>, 2009. 7. 2
- [7] Jang, dal-soo, "study of Freud's Psychoanalysis about dream sequence image", <http://cafe.daum.net/>

- jangdalsoo/iXlb/5, 2017.4.17.
- [8] Hong, soon-lae, various symbolizing way of Dream, Dr. Hong, soon-lae's interpretation of dream , understanding of dream, http://www.984.co.kr/kweb/bbs.php?table=mb_llec3, 2010.1.10.
- [9] Tae-hoon, Lee, “A study of dream sequence in Freud's Psychoanalysis (Focusing on the David Lynch's film “Mulholland Drive (2001)”)”,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 14, No. 12, p436, 2016.
- [10] Cha min-chul, Kim eui-suk, the dictionary of early 20th century's film making people, daum,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94XXXXksm035>.
- [11] namu-wiki, “Christopher nolan”, 2017.
- [12] Cha min-chul, Kim eui-suk, the dictionary of early 20th century's film making people, daum,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94XXXXksm035>.
- [13] Joy of watching film/ Cann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ollywood's fear and loathing, <http://noproblemmylife.tistory.com/1490>, 2015.9.10.
- [14] hja3694, The my own way critics, mulholland Drive - love uncertainty, <http://blog.naver.com/hja3694/220370244907>, 2015.5.26.
- [15] Hong, soon-lae, various symbolizing way of Dream, Dr. Hong, soon-lae's interpretation of dream, understanding of dream, http://www.984.co.kr/kweb/bbs.php?table=mb_llec3, 2010.1.10.
- [16] Son, nak-chun, “Freud - unconsciousness”, <https://brunch.co.kr/@dosa1000/168>, 2017. 3.

이 태 훈(Lee, Tae Hoon)



- 2003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상미학, 표현기법
- E-Mail : thlee1401@khu.ac.kr